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위한 시위

2016년 8월 13일 (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파리 광장 오후 16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 국내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후 24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을 부적절하게 타결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이번 문제가 „최종적“ 이고 „불가역적“ 으로 해결됐음이라는 발언은 만민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협상을 타결할 당시 25년째 1 회도 쉬지않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 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한일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가담“ 하였으며 „주관“하였다는 표현을 회피하였고.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에게 재단 설립 기금 10 억엔 (약 7,8 Mio. Euro)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14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민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협상의 결과를 비판하고 협상의 무효, 일본의 진정성 있는 법적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시민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16년 7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을 발족시켰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협상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싸워왔던 25년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한일 협상에서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학생과 사회에서 아무런 과거 청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피해자 분들이 부끄럼을 무릅쓰고 전세계를 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울부짖고 외치던 모든 노력이 소용없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일본군 위안부 범죄 피해국 활동가들은 "정의롭지 못한 합의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남한 정부와의 한일 협상이 마지막으로 될 것이며 다른 피해국가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 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 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 명으로 줄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죽기 전의 소원이라고 말한다. (한일협상 원문은 위키백과에서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2015년\\_한·일\\_일본군\\_위안부\\_협상\\_타결](https://ko.wikipedia.org/wiki/2015년_한·일_일본군_위안부_협상_타결))

이러한 부당한 한일협상을 즉각 무효화하도록 오는 2016년 8월 13일에 독일, 일본, 한국 6개 단체 일본 여성 이니셔티브, 옹기 김학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해 단체, 코리아협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독.일 평화포럼, 재독 여성 모임, 동아시아 선교 협회 (DOAM) 가 앞장서서 시위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예술가 카즈마 글렌 모토무라 예술가의 스펙트레 라는 퍼포먼스, 오페라 가수 목진학가 부르는 노래, 가야 무용단의 아리랑 춤 등으로 평화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것이다.

### „살아있는 소녀상“

2015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살아있는 소녀상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14개국 이상의 피해국가 여성들을 상징할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국한된 특정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범죄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이를 강조하고 밝히기 위하여 일본군 피해국 15개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소녀상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15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피해 국가 여성들과 함께 살아있는 소녀상 퍼포먼스를 함께 할 것이다.

**주최:** 일본 여성 이니셔티브, 옹기 김학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해 단체, 코리아협의회, 독.일 평화포럼, 재독 여성 모임, 동아시아 선교 협회 (DOAM)

**후원단체:**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일본 협력 그룹, 베를린 여성 네트워크, 독일 동아시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 태평양 정보 안내소, 아시아하우스 재단, 테레 데 팜 - 여성 인권 단체

**연락처:** Korea-Verband e.V., Rostocker Str. 33, 10553 Berlin, Tel: +49 (0)30 - 3980 5984

[www.koreaverband.de/trostfrauen/](http://www.koreaverband.de/trostfrauen/) [www.facebook.de/trostfrauen/](https://www.facebook.de/trostfrauen/) [info@koreaverband.de](mailto:info@koreaverband.de)